

자기를 바로 봅시다

오른쪽 어깨에 아버지를 업고
왼쪽 어깨에 어머니를 업고
천년을 봉양해도 자식은
이전의 부모의 은혜에
보답할 수 없다.

불설부묘논보경

현대불교

佛事 전념 30년
불교미술전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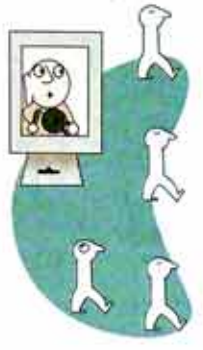
시립미술관의 모든 것
의미 있게 드립니다.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홍사 향토대불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조계종은 지난 98년 인터넷·PC 통신업체인 데이콤과 '불교정보화 협력 협정'을 체결해 달마넷 포털 사이트를 만들었다. 그러나 10여 만개의 '달마넷'을 보급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했지만 '달마넷-천리안' 회원은 2,000여 명이 불과한 실정이다. 그간 조계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드자

종은 부족한 정보화 예산과 기량지기 후속관 개발, 시스템 교체 등의 이유로 새로운 콘텐츠 개발은 업로드 못내고 중단 전산화의 상징인 달마넷의 현상유지에 만족해야 할 형편이었다. 사실 조계종의 정보화 사업은 다른 종교에 비해 뒤떨어진 것이 아니었다. 98년에는 정보화사업의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통신부로부터 표창을 받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마넷을 중심으로 한 중단 전산화 사업이 재차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됐다. 하나는 불자, 특히 스님과 사찰종무원들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이고 다른 하나는 정보화 사업에 대한 지원 부족이다.

조계종의 경우 사찰 증무행정프로그램인 '가람지기'를 500여개 배포하며, 14차례 걸쳐 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했지만 교육인원 미달로 취소되는 경우까지 있었다. 분담금 인상 등의 이유로 각 교구본사에서 정보화사업을 꺼린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중단 차원의 지원부족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문제다. 조계종을 비롯한 주요 종단의 전산관련 예산은 2~3명에 불과하며, 예산도 유지·보수비용에 불과해 콘텐츠 개발과 업그레이드 등 개발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이같은 사부대중의 정보화에 대한 인식부족과 중단 차원의 지원 부족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불교정보 부족이라는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각 종단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조계종을 비롯해 대교종, 천태종, 진각종, 총지종 정도. 그러나 아직 사이버 포털에서 내실 있는 홈페이지를 갖춰놓고 보기는 힘들다.

사이버 증무행정서비스, 불교 데이터베이스 제공, 신형상당, 중단 및 주요사찰 소개 및 행사안내, 불자공동체 코너 등을 갖춘 전산통합 정도망을 구축해야 증무행정 전산화에서 한발 더 나아가 제3의 포교 매체로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재경 기자(jgkm@buddhania.com)

교계 복지시설 관리 허술하다

공공형량 부실운영 등 속암이

중단차원 '시설등록법' 제정 교구본사별 법인설립 감사

복지시설 관리시스템 강화

건물도 사정에 철저한 관리와 감사만 이뤄졌더라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인재'였다. 불교계가 운영하고 있는 복지시설 200여곳 중 조계종 복지재단의 관리와 받고 있는 곳이 70여곳에 불과해 개인이 설립한 법인이나 시설을 통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것도 큰 문제다. 게다가 이들 70여 곳도 실질적인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사실상 각 시설은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르는 불씨를 안고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해 교계 복지 관계자들은 현결같이 "중단에서 사회복지시설·단체 등록법을 만들거나 종합법 명시돼 있는 사회복지법령을 강화하고 이 법을 뒷받침할 만한 체계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들은 또 "지금 하지 않으면 불교

복지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단체 등록법이란 불교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모든 시설들이 중단에 의무적으로 등록해 활동하도록 하는 제도. 전문가들이 가장 바람직한 제도로 꼽는 것은 중단차원에서 복지재단보다 더 강력한 통제기구를 두는 중앙집중식보다는 교구본사별로 복지법인을 설립하고 각 복지시설들이 활동지역의 해당 교구본사에 등록해 통제를 받는 체계다. 이 경우 문제 발생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지도감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미인가 시설을 인가 시설로 전환

의 한 복지시설은 투명하지 않은 운영으로 불자들로부터 의혹을 사고 있다. 이들 경우도 역시 관리부실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밖에 소책세마을을 비롯해 실버타운 보리수마을, 치자마을, 자양복지관, 부산 공창복지관 공공형량 및 유용사건 등 96년부터 지난해까지 교계 복지시설들에서 발생한 각종 사

리체계 없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최근에는 불교계가 위탁 운영하는 서울 모 어린이집에서 운영상 문제가 발생해 재위탁에 들어갔는가 하면, 지방의 한 복지법인은 복지시설을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 경영부실로 운영권을 다른 사립에게 넘겨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스님이 운영하는 지방

10월 16~20일 종교대표 방북

본단 후 처음으로 남북종교대표회담이 열린다. 문화관광부는 7일 불교 등 7대 종교에 대한 종교대표 방북 보고를 통해 방북 일정은 10월 16~20일이며, 이 기간 중 북한 의 조선종교인협회와 남북종교대표회담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종교인협회는 조선불교도연맹, 조선기독교도연맹, 조선천주교인협회, 천도교중앙지도위원회, 조선유교연맹 등이 속해 있다. 회장은 북한 적십자회 회장도 맡고 있는 장재연이다.

종교대표 방북단은 불교 4, 개신교 4, 천주교 2, 원불교 유교 천도교 민족종교 각 1명 등 14명과 실무지원팀 4명 등 20여 명으로 구성된다. 불교에서는 조계종 총무원장 정대승, 태고종 총무원장 인곡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운덕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성초 대정사가 불교대표로 방북한다. 정성문 기자 (swjung@buddhania.com)

불교TV 50억 증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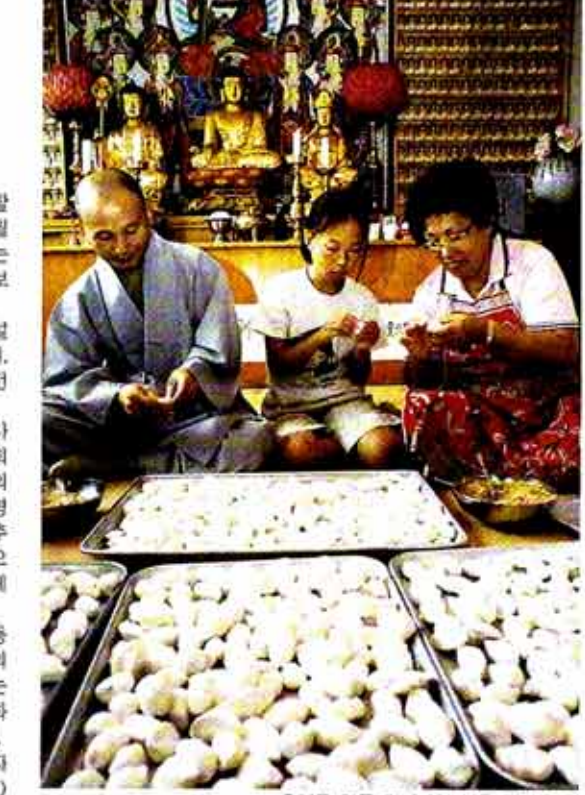
위성방송 컨소시엄도 참여

부산지사 재설치

불교TV(사장 이수덕)는 6일 마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35회 이사회를 열고 11월 15일 신주 발행을 통해 50여억원을 유상 증자하기로 결의했다. 또 98년 1월 경영난으로 폐쇄된 부산지사를 이번 달부터 다시 재설치키로 했다. (관련 기사 3면)

불교TV 회장 성우스님 등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 이수덕사장은 "위성방송 컨소시엄에 참여키 위해 한국통신과 5일 정시계약 조인을 마친 상태"라며 "현재도 3~4개의 지역 유상방송을 통해 위성방송을 내보내고 있다"고 밝혔다.

위성방송은 정부 방송위원회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지난 8월 위성방송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었으나 한국통신과 데이콤 등 참여업체와 정부간 지원율에 이견을 보임에 따라 무기한 미뤄졌다. 방송위원회는 11



자비의 승편 추석을 앞둔 지난 8일 서울 미아동 자비의 집에서 800여명의 봉사회원과 어린이들이 함께 승편을 만들고 있다. 이날 정성껏 만든 승편은 관내 저소득층 가정 300세대에게 전달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문화재 관람료 최고 30% 인상

12월 1일부터 시행

12월 1일부터 문화재관람료가 최고 30% 인상된다. 조계종 관할부위원회(위원장 지명) 및 관할사찰 주지스님 등은 5일 연석회의를 갖고 북한 문화재 사찰복원기금 마련과 물가, 인건비, 관리비용 등이 상승함에 따라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12월 1일부터 최고 30%까지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일부 관할사찰의 경우는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인상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계종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3년 동안 관람료를 인상하지 않아 문화재 보존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증자승가대 이견을 위한 교육특별분담금 징수를 2005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관람료 수입의 5%를 납부하는 교육특별분담금을 98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돼 오고 있다.

한편 국립공립관리공단은 7월 1일부터 공립관립료를 1000원에서 1300원으로 30% 인상한 바 있다.

매일 인터넷 현대불교
Buddhanews.com

사이버 기자 모집합니다

불교계 최초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가 사이버기자를 모집합니다. 성별 직업 나이에 관계없이 불교정보화를 이끌면서 신형 포교 중단 문화 복지 환경 국제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아이디어가 있는 불자면 누구나 지원가능합니다.

- ◆지원방법: 붓다뉴스 홈페이지(www.buddhanews.com) 지원서서 인적사항 및 생물기사를 기입
- ◆모집기간: 2000년 9월 30일~9월 30일
- ◆발표: 2000년 10월 초 '붓다뉴스'
- ◆특전: 소정의 원고료가 지급됩니다.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722-4162. rcpark@buddhania.com

추석 연휴로 다음주 신문 쉽니다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만을 공급하는

성불 조각원

전통 불교 목공예 전문인 성불 조각원은 모든 작품들을 옛 전통 기법으로 재연해 만듭니다. 또한 목조각에 혼이 깃든 작품,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모든 불사현장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직 불심으로 일구어진 불자기업 성불조각원이 인사드립니다. 성불 하십시오

*모든 불사현장에 쓰여진 모든 작품들은 주문제작이 가능합니다.

문의 033)263-1102 H-P 011)289-1442

■ 옛 전통 기법을 재현하여 조각한 통조각 작품

목불상

16나한

500나한

사찰문

사치양

최고의 작품만을 최저의 가격으로 공급하는 불자기업 성불조각원